

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구조모형 분석

전 연 진* (연세대학교 강사)

정 문 자 (연세대학교 아동·가족학과 교수)

본 연구는 가족과정 변인으로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, 부부갈등,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을, 아동 특성 변인으로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선정하여 이들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, 그 경로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.

연구 대상은 안양시에 위치한 두 개 초등학교의 4, 5학년 405명(남아 209명, 여아 196명)이었다.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, 부부갈등은 부모가,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,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이 질문지를 통해 응답하였다. 자료 분석은 아동의 성에 따라 각 측정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, 각 변인들간의 이론적 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(Structural Equation Modeling; SEM)을 사용하였다.

이론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, 부부갈등, 부모-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, 부모-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, 그리고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아동의 성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.

먼저 남아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-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었다.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아들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, 부모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아들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.

다음으로 여아집단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으로부터 아동의 행동문제에 이르는 경로가 두 가지로 나타났다.

첫째,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모-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. 즉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딸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, 부모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딸은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.

둘째,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모-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거쳐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었다. 즉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아 부모가 딸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하며, 이렇게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딸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.